

사회

이제는 씻어야 할 5·18 트라우마 5·18 민중항쟁 32주년

정신병원 전전... 그날 이후 삶은 악몽의 연속

<2> 아직도 환청 시달리는 김치곤씨

“공수부대원들이 죽일 것처럼 쫓아오죠.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 떨어 지기도 합니다. 와~ 와~ 그날의 함성이 환청으로 들리고 가위눌림 벌떡 잠이 깨곤 합니다.”

7일 오후 광주시 남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만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김치곤(73)씨.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요즘도 그 때 그 고통의 굴레에 갇혀 있다.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는 새벽이면 식은땀을 흘리고,

맥이 빠져 만사가 귀찮아진다. “이렇게 사느니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생각도 했다는 그는 “5·18을 겪었던 40대 이후 삶은 ‘그날’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악몽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1980년 계엄군의 진압작전 직후인 5월22일, 당시 건축업을 하고 있었던 마흔 한살의 김씨는 금남로 가톨릭센터 시위현장을 찾았다. 시민들을 무참히 폭행하는 공수부대원들을 보고 흥분한

김씨는 군인들에게 욕설을 내뱉은 뒤 쫓기게 됐고, 공수부대원이 휘두른 총검에 머리를 맞고 실신한 후 겨우 살아났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다. 잘나갔던 사업은 시들해졌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일췌였다. 개인병원 정신과, 국립나주병원·서남대병원 등을 전전하며 30여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 했죠. 그 일로 인해 사업도 망하고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으니 살 의욕이 있어야 하는 공수부대원들을 보고 흥분한

경적적으로도 공립해졌고 경비원 등으로 일하며 2남2녀를 키웠지만 가족들에겐 지금도 미안한 마음 뿐이다.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정제를 먹고 산다는 김씨는 최근 5·18 기념재단과 평화박물관이 공동주관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치유모임에 참여, 그나마 위안을 얻고 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시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삶에 대한 상실감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에게 3개월간 진행된 치유프로그램은 심리적인 안정을 주었고 심리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무엇보다 자부심과 긍

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는 것.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5·18이라는 특별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유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5·18 관련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유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광주시가 조만간 5·18 관련자 등을 위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악몽의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좀더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의의



30여년을 정신병원을 오가며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김치곤씨가 지금까지도 5·18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갖춘 센터가 마음의 생체기를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561) 김장두



어린이 유인 교회 데려간 주일학교 교사 2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3일 초등학생을 게임기로 유인해 강제로 교회로 데리고 가려한 광주시 남구 모 교회 주일학교 교사 최모(여·24)씨 등 2명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교회 ‘전도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교회에 가면 게임기와 과자 등을 주겠다”며 초등학교 2년 문모(7)양을 교회 차량에 태워서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미혼 여성 “父 닭은 연인 선호 인해”

미혼 여성 대부분은 아버지와 비슷한 남성을 애인으로 선호하지 않는 반면 미혼 남성들은 어머니를 닭은 연인에 높은 호감을 보여 이어.

○7일 소셜데이팅서비스 이추에 따르면 최근 20세 이상 미혼남녀 1196명(남 628명·여 568명)에게 ‘부모를 닭은 이성과의 연애’에 대한 조사 결과 여성 60.4%는 ‘아버지를 닭은 연인이라면 싫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성 66.1%는 ‘어머니를 닭은 연인이라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



무더운 날씨 속 마을 공동묘지

7일 오후 무더운 날씨 속에 광주시 남구 대지동 마을주민들이 마을 공동 묘지리에 모판을 놓고 있다. 모판에서 지란 모는 한 달 뒤 눈에 옮겨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안갯길 교통사고 사망 크게 늘어

광주경찰, 금~일요일 사망 60% 차지

올 들어 지금까지 비·안개 등으로 기상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6일까지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년도 31명보다 줄었으나 봄철 이상 기후로 인해 지난달 말부터 비·안개 등이 찾아지면서 기상불순시 사망사

고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이었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사망자가 없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3~19세 1명, 20대 5명, 30대 6명, 40대 4명, 50~64세 6명, 65세 이상 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과 비교했을 때 각각 1명이었던 20대

와 4명 있었던 30대가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 추세로 분석됐다.

교통사망 사고 발생 시간대는 자정~새벽 4시 사이가 12명(4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비·안개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날씨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1명에서 올해 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고유형별로는 단독사고 사망자가 8명으로 지난해 2명보다 증가했으며, 사고 원인으로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27건 중 보행자 사고는 전년보다 줄었으나 전체 사망자의 38.5%를 차지,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요일별로는 금~일요일 사고 사망자가 16명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사고도 지난 6일까지 425건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 388건보다 9.5% 늘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무등홀에서 5개 경찰서 교통·생활안전과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100일 계획 범 조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4년만에 부른다

5·18 기념식순 포함 기념 영상은 제외

국가보훈처와 5월 관련단체 간 갈등을 빚어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중항쟁 32주년 기념식에서 부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5·18 민중항쟁의 의미 등 역사적 의미를 영상화해 참배객들에게 보여주는 5·18 민중항쟁 기념 영상은 식순에서 제외됐다.

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중항쟁 32주년 기념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포함됐다. 다만, 예전처럼 추모객들이 이 노래를 제창하지 아니면, 지난해처럼 광주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진행될 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32주년 기념식에서 추모객들에 의해 제창될 경우 4년 만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게 된다.

하지만, 5·18 민중항쟁의 의미와 과정 등을 영상화해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5·18 민중항쟁 기념 영상은 공식 식순에서 빠졌다. 2010년과 지난해엔

기념 영상과 기념 영상 시가 기념식에서 전파됐다. 국가보훈처 측은 기념식순에 5·18 기념 영상을 제작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뒤통수 맞았다고 설명했다.

5·18 민중항쟁 경과보고도 5월 관련단체(5·18 유족회, 5·18 구속 부상자회, 5·18 부상자회) 몫으로 바통이 다시 넘겨졌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32주년 기념식에서 어느 단체 소속 누가 5·18 민중항쟁 경과보고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5월 관련단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 관련단체들이 경과보고 주체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경과보고 주체가 또다시 국가보훈처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2년 전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를 놓고 분열을 자초한 데 이어 최근엔 5·18 공판단체 설립 방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32주년 기념행사는 개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5·18 민중항쟁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 공연(임을 위한 행진곡 등), 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olar energy systems. Title: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olar, solar heat are no longer choices but necessities!). Includes images of solar panels and a table of installation costs.

Advertisement for health books. Title: 가정에서 준비 할 건강 필수 도서 (Essential health books to prepare at home). Lists 12 books with prices and a total price of 194,900 won.